

더 잘해주지 못해서, 더 곁에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가슴 저미며 세상의 시간을 내려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뿐입니다. - 성전스님 -

김동일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장, 불교상담학술상 최우수상 수상

김동일 한방병원장이 지난 10월 12일 군포 정각사에서 열린 제5회 불교상담학술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가면우울증 환자의 불교치유 상담’ 논문을 통해 난임 여성과 중년 남성의 가면우울증을 불교상담학적으로 해석하고, 통합적 치유 모델을 제시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논문은 현대인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연구라는 심사평을 받으며, 불교상담학이 단순 이론을 넘어 실천적 치유의 길을 열었음을 보여주었다.

정각사 주지 정엄 스님은 학술상 상금과 운영지원금 2000만 원을 한국 불교상담학회에 전달하며 연구를 격려했고, 안양규 학회장은 “수상작들이 불교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가능성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정각사 불자 150여 명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진료협력센터, ‘2025년 협력병원 초청 세미나’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진료협력센터는 지난 10월 21일 ‘2025년 협력병원 초청 세미나’를 병원 5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협력 병원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여성에게 흔한 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주제로 진행됐다.

세미나 좌장은 광범석 여성종양센터장(외과 교수)과 이호준 진료협력센터장(재활의학과 교수)이 맡았으며 ▷갑상선 기능 이상의 진단과 치료(내분비내과 이승은 교수) ▷갑상선 결절, 무엇이 수술을 결정하는가?(외과 반은정 교수) ▷부인암의 예방(산부인과 이채형 교수) ▷가임력 보존은 누구에게 어떻게 하나요?(산부인과 김란희 교수) ▷유방통증, 혹시 암일까요?(외과 김하경 교수) 순서로 발표가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는 협력 의료기관 간의 상호 교류와 신뢰를 강화하고, 진료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리가 되었다.



신속대응팀 운영, 중증 악화와 응급 상황 발생 최소화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0월 1일 호흡기내과 조수민 교수를 팀장으로, 5명의 전담 간호사들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개설했다.

신속대응팀은 병원 자체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AI 기반 RRS(신속대응시스템)를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환자 상태 변화를 조기에 감지해 중증 악화와 응급 상황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맞춤형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자의 생존율 향상과 의료서비스의 효율성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이번 신속대응팀 출범은 병원 내 응급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환자 중심의 안전 문화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메타프랜즈,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발전기금 1,310만 원 전달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0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 메타프랜즈(회장 황순덕)로부터 병원 발전기금 1,31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날 전달식에는 황순덕 회장을 비롯해 임완숙 고문 등 메타프랜즈 임원진이 참석했으며, 병원 주요 시설 라운딩과 법당 참배를 통해 병원의 불교적 정체성과 의료 현장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황순덕 회장은 “이번 발전기금은 메타프랜즈 회원 도반들의 십시일반 보시 동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불교병원의 자비행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했으며 앞으로도 병원이 첨단 의료기관으로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백용해 병원장은 “불교적 가치로 의료를 실천하는 우리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 큰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자비와 나눔의 뜻이 담긴 이번 기부를 계기로 더욱 따뜻한 자비의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성암 환우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사찰 순례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종양환자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 ‘여성암 환우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사찰 순례 행사를 개최했다. 강화도 전등사에서 진행된 이번 순례는 광범석 위원장 및 여성암 환우 20여 명이 참석해 사찰 투어와 명상, 전통 사찰음식 체험, 점심 공양, 그리고 여암 주지스님과의 차담 시간을 가졌다. 여성암 환우들은 사찰에서의 평화로운 환경과 명상, 건강한 음식 체험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회복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특히 주지스님과의 차담 시간은 환우들이 정서적 지지를 받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깊은 연대감을 형성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정심행 완화의료센터, ‘한가위 간식 나눔’ 행사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정심행 완화의료센터는 지난 10월 8일 추석을 맞아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따뜻한 간식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명절 기간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소외감을 덜고 정서적 안정을 도우며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센터는 이날 행사에서 명절 대표 음식인 전, 송편, 식혜 등 전통 추석 음식을 준비하여 제공했다. 정심행 완화의료센터는 환자 개개인에 맞춘 돌봄 서비스와 다양한 사회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